

우리나라의 축제 중에 단오가 있습니다. 단오는 음력 5월5일입니다. 그 날에는 여자는 그네 타기를 하고 창포에 머리를 감습니다. 남자는 모래사장에서 씨름(한국의 스모)을 합니다. 이경기의 제1위는 상품으로 황소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하 장사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것은 남자로서 매우 명예로운 일입니다. 단오에는 정오에 액로초의 즙을 마십니다. 이것은 여름동안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석은 추수감사절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갑니다. 추석에는 햅쌀로 만든 송편과 햇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을 차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2회의 차례를 지냅니다. 1회는 추석이고 1회는 설입니다. 설에는 차례상에 떡국을 놓습니다. 추석은 가을이고 설은 겨울입니다.

설에는 연을 띄웁니다. 그리고 웃어른에게 절을 합니다. 설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는 것은 1살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이 지나면 대보름이 됩니다. 대보름이 지나면 연을 날리지 않습니다. 이날은 달을 보고 소원을 빕니다. 대보름에는 나물과 오곡밥을 먹습니다. 밤이 되면 동네 여자가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빙빙 돌립니다. 그리고 다리 밟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리(足)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에는 각각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축제에서 선조의 지혜를 배웁니다.